

오늘 같이 좋은 날

2013년 5월 12일 안도인. 박승호.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1부 예배에 다녀왔다.

왜냐하면 아내이니까 이제 내리야 러면이네. 모두 함께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우리 식구 모두 노니깐 연 식구다.

강한, 혜영이네 그네가 생기면 몇 명인 될까?

이런이날. 아내이날, 19일이면 내리 생일~

강한이랑 혜영이가 생일때마다 샀더니, 그리고 선물 우리 서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 즐거워 했다.

머릿핀 중국 여행 갈때도 힘든데도 감사해서 보내줬는데 머릿핀 뭐라?





하루 때가 늦어 오니까 땀, 샤워.

아름 예쁘리 에게 근방인 미안라기
그리웠다.

특히 우리 손주 민상이. 상원이 되지 카드는
감동이었다.

아침을 먹고 강현이는 요즘 논문 준비로
바빠서 자기 방으로 내려가고

아빠와 초영이는 야구경기 시청하고
초현이는 모두 데리고 부천 만화박물관
에 갔다.

전일은 다 같이 불평애말 박주수로
포스팅한 김에 와서 조은 쉬었다가
리덕은 안먹고 강과 김으로 갔다.
몸 상심했다.

오늘 반감인 가면 더 반감다는 말이
실감인 간다.

일찍이 배려 나간것 같이 선행이다.



아빠와 김은 원소, 배삼래를
하고 강현, 레밍나가
올라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를
왕십 켜다.

따르릉~ 전화 벨 소리
승원이 매 잠 앞라는 전화 ...
전은 승이가 또 따르릉~.
민승이 매 전화 ...

2013. 11. 12

재희.

